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자존감,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조혜경¹, 임현숙^{2*}

¹전주대학교 간호학과, ²호원대학교 간호학과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Married Immigrant Women's Self-esteem, Depression, Stress

Hae-Kyung Jo¹, Hyun-Suk Lim^{2*}

¹Department of Nursing, Jeonju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Ho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 여성의 자존감과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결혼이주 여성들의 우울 및 일상생활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및 중재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 여성 126명을 대상으로 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는 소득 수준($p=.001<.01$)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는 자존감($r=.569$,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자존감, 일상생활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자존감은 2.452,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2.418, 우울은 2.278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p<.001$)는 자존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beta=.472$) 자존감이 높아졌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결혼이주 여성들의 우울 및 일상생활 스트레스 감소를 통해 그들이 더욱 안정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며,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지지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self-esteem, depression, and stress of migrant women for marriage and to use them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depression and stress intervention strategies. This study provided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of 126 migrant women for marriag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 of social support wa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correlated to the migrant women's income level ($p = .001 <.01$) and self-esteem ($r = 0.569$, $p <.001$). However,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among self-esteem, stress, and depression. Reviewing autocorrelations of the three dependent variables and the multi-collinearity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s, the autocorrelations of self-esteem, stress, and depression were 2.452, 2.418, and 2.278, respectively, indicating the absence of any autocorrelation problem.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social support ($p < 0.001$) had a significant and positive relationship with self-esteem. The higher the social support ($\beta = 0.472$) was, the higher the self-esteem was. Based on the study results, it is expected that developing various programs of social support for migrant women for marriage is likely to reduce their depression and stress and increase the stability of family and social life.

Keywords : Depression, Marriage Immigration Women, Self Esteem, Social Support, Stress

본 논문은 2019년도 호원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Hyun-Suk Lim(Howon Univ.)

email: progress@howon.ac.kr

Received November 8, 2019

Accepted December 6, 2019

Revised December 2, 2019

Published December 31,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인의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은 2017년 기준 2만 8백 건으로 2016년 대비 2백 건 즉 1.2% 증가했으며, 외국인 여자와의 혼인은 1만 4천 9백 건으로 최근 3년간 1.6%의 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까지는 종교단체를 통해 입국한 일본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초부터 중국 및 필리핀 국적의 결혼 이민자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최근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태국 등 출신 국적이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 또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는 14만7382명이며, 84.9%가 여성결혼이민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와 함께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이 추진되어 오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는 다문화 가정의 증가를 말하며, 다문화 가정 그리고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할 것이다[3].

결혼이주여성들은 매일의 생활에서 수많은 장벽과 고난에 부딪히게 되며[4], 한국사회와 융화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주변인'이 되며 이로 인한 외로움과 어려움을 경험한다[5]. 또한 가족들의 무관심과 지지부족, 경제적 어려움, 고국에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신체, 정서, 사회적인 변화로 한국여성들 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6]. 이민자들은 본국에서 가깝게 지내던 친구, 가족과의 관계단절로 인해 상실감을 경험하며, 대처자원이 감소하게 된다[7]. 이로 인한 여성, 어머니의 우울은 본인 자신의 어려움 뿐 아니라 가족과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악화시킨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우울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우울은 이주해온 사회에 더욱 적응하기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준다[8]. 여성의 경우 사회적 활동이 적고 집에 머무는 경우가 많으며, 언어능력 부족으로 인해 남성보다 문화적응이 어렵다. 이로 인해 결혼이주여성들은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에서 남성에 비해 더 취약하며, 결혼이주여성들은 본국에서 누리던 가족이나 친밀한 사회적 지지망의 상실과 이주사회 적응에 필요한 사회적 지지 체계의 취약성으로 인해 이주해온 국가의 일원으로 적응하며, 살아가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9].

우울증과 관련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여성 유병률이 남성 유병률 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2016년도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 평생 유병률이 여성의 경우 6.9%, 남성은 3.0%로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에서 10점 이상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2014년 기준 남성 4.3 %, 여성 8.8%에서 2016년 남성 4.1%, 여성 7.0%로 여성이 남성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정신건강의 주요지표가 되는 19세 이상 스트레스 인지율에서 2014년 남성 24.4 %, 여성 28.6%에서 2016년 남성 28.2%, 여성 30.6%로 2014년도 대비 남성, 여성 모두 스트레스 인지율이 상승했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았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0].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조사사업에도 전반적으로 여성이 스트레스에 취약하며, 우울증 발병이 남성 대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일반 여성들이 갖는 취약성과 함께 문화적, 환경적 어려움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더욱 세심한 관여가 필요하다.

자존감은 전반적인 자기 가치감으로서 자신의 여러 특성 또는 자신의 여러 측면 등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들을 나타내며, 자신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성격변인이다. 자존감은 여러 가지 긍정적 심리적 특질과 상관이 있으며, 낮은 자존감은 우울증, 심리적 장애와 관련이 있다. 또한 제한적 인간관계, 낮은 자존감은 모두 우울 증상과 관련이 있다[11].

결혼이주여성들처럼 타국에서 제2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우울은 단순히 적응상의 문제로 생긴 결과라기보다 타 문화권과의 적응과정에서 유발된 스트레스와 이에 대응하는 개인 내적 자원 및 외적 지지와의 관계 속에서 조망하여야 한다. 또한 우울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이민국가에서의 삶속에서 이민자 자신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12].

결혼이주여성의 어려움 중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7][8] 많으나 그들이 겪는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양육 효능감[13][14] 등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파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결혼이주여성들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관련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

구들이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결혼이주여성들의 우울과 일상생활 스트레스,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따라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져가는 현실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 자존감과 관련한 적극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적응과 가정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들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살아가며, 가정을 안정되게 유지하고 자녀양육과 배우자와의 적응 및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정책적 전략 및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간호증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자존감,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우울을 낮추며,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중재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연구대상자가 경험한 사회적 지지가 자존감,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자존감,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 대상자는 I시 소재 다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있

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1)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 (2) 기초 한국어 과정을 이수한 자, (3) 한국어로 된 설문지를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자, (4)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자로 하였다. 본 설문지는 한글로 작성하였으며,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온 한국어와 모국어가 유창한 결혼이주여성이 통역을 도왔으며, 설문지에 나타난 질문을 자세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본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직접 설명을 통해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 시 개인 정보는 비밀 보장이 되며, 연구 참여 중에도 참여를 거부할 권리와 연구결과는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결과는 출판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표본크기 산정은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회귀분석의 사례 수 산정을 위한 조건으로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80, 효과크기는 본 연구와 가장 근접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2로 하였으며, 투입할 예측변수의 총 수는 통제변인까지 고려해 10개로 가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118명으로 산정되어, 총 1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 중 무응답 문항이나 부정확한 응답이 많은 24부는 제외하고 최종 126부를 분석에 사용해 본 연구의 표본은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2019년 5월에 I시 소재 다문화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및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 후 조사대상 기관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후 자료 수집을 2019년 5월 7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Park[15]이 개발하고, 내적일관성을 Kim[16]이 확인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가지 하위척도 즉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구성되어 사회적 지지를 체계화 한 것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5점의 Likert 척도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응답방식은 현재 일상생활 중에 주위사람들(가족, 친구, 친척, 이웃, 직장동료, 전문가 등)로부터 받은 사회적 지지를 국제결혼 이주여성 응답자가 느끼는 정도로써, 각 문항에 대해 지난 1년간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

다(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1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54$ 였고 본 연구에서 자료의 정규성을 보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이용하였으며, 왜도는 -0.610, 첨도 -0.108로 왜도의 경우 절대값이 3, 첨도의 절대값이 7 이내이므로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71$ 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다.

2.3.2 우울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Beck Depression Inventory(이하 BDI)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BDI는 우울진단용으로 고안된 것이며, 정상인의 우울상태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연구에 이용되어 왔다[17]. BDI 원척도는 총 21문항의 4지선다형으로 총점은 0점부터 63점까지로 주어지며, 9점 이하는 정상범위, 10~15점 경도의 우울, 16~23점 중등도 우울, 24점 이상이면 중증 우울을 의미한다. 베트남 이주여성들의 우울을 측정할 Hong 등[17]의 연구에서 우울 척도는 Cronbach's $\alpha = .863$ 이었고, 본 연구에서 왜도는 0.559, 첨도 -1.069로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70$ 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다.

2.3.3 일상적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Koh & Park[18]이 개발하고, Mun[19]이 내적일관성을 확인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인지적 스트레스 반응척도(Cognitive Stress Response Scale, CSRS)는 스트레스 후에 일어나는 인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모두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척도의 하위 요인은 극단-부정적 사고(9문항), 공격-적대적 사고(4문항), 자기 비하적 사고(8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분석하였다. 총점은 21점부터 105점 사이로 총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Mun[1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5$ (하위영역별로는 극단-부정적 사고 Cronbach's $\alpha = .85$, 공격-적대적 사고 Cronbach's $\alpha = .82$, 자기비하적 사고 Cronbach's $\alpha = .89$)였고, 본 연구에서 왜도는 0.585, 첨도 -1.060으로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80$

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다.

2.3.4 자존감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20]가 개발하고 Suh[21]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필리핀어, 일본어로 번안해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해 본 것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고,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Suh[21]의 자아존중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02$ 였다.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거의 그렇지 않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 중 문항번호 3, 5, 8, 9, 10번은 자아존중감에 대해 부정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코딩 시 역코딩하여 합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왜도는 -0.067, 첨도 -0.727로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08$ 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다.

2.4 자료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2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차이는 ANOVA를 실시하였으며, Scheffe의 사후분석을 수행하였다.
- 3)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 4)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20~30대가 103명(81.7%)로 전반적으로 젊은 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적은 베트남 82명(65.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 12명(19.5%), 일본 18명(14.3%), 필리핀 8명(6.3%), 캄보디아 3명(2.4%), 기타 3명(2.4%)순으로 나타났다.

본인 연령대의 경우 20대 46명(36.5%), 30대 57명(45.2%), 40대 11명(8.7%), 50대 12명(9.5%)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의 경우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가 84명(6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와 부부, 미혼자녀 가구가 39명(31.0%)으로 다음 순위였다.

본인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7명(45.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학교 졸업 47명(37.3%), 대졸이상이 22명(17.5%)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연령대는 40대 78명(61.9%), 50대 30명(23.8%), 30대 18명(14.3%)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86명(6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졸이상이 20명(15.9%)과 중학교 졸업 20명(15.9%)은 비율이 같았다.

경제상태 즉 수입의 경우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가 53명(4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가 38명(30.2%),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가 19명(15.1%), 100만 원 이하가 16명(12.7%)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의 경우 7년 이상이 74명(58.7%), 5년 이상 7년 미만이 26명(20.6%), 3년 이상 5년 미만이 19명(15.1%), 3년 미만이 7명(5.6)로 대다수가 5년 이상 장기 거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만족도의 경우 보통이다 63명(50.0%), 만족한다 37명(29.4%), 매우 만족한다 14명(11.1%), 불만족 10명(7.9), 매우 불만족 2명(1.6%)로 대다수가 보통이상 만족한다 에 분포해 있었다(Table 1).

3.2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자존감, 일상생활 스트레스, 우울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소득수준 ($p=.001<.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사회적 지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본인 연령 ($p=.039<.05$), 배우자 연령 ($p=.019<.05$), 배우자 학력 ($p=.002<.05$), 소득 수준 ($p<.001$)에 따른 자존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의 사후분석 결과 본인 연령은 20대가 28.13으로 40대의 24.45보다 높았으며, 배우자 연령은 40대가 27.49로 50세 이상보다 높았다. 배우자 학력은 고졸이 27.53으로 대졸 이상보다 높았으며, 소득수준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100만원 미만보다 높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categories	n	%
Nationality	China	12	9.5
	Japan	18	14.3
	Philippines	8	6.3
	Vietnam	82	65.1
	Cambodia	3	2.4
	etc.	3	2.4
Immigrant Women age	twenties	46	36.5
	thirties	57	45.2
	forties	11	8.7
	fifties	12	9.5
Immigrant Women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47	37.3
	high school graduate	57	45.2
	over college graduate	22	17.5
Spousal age	thirties	18	14.3
	forties	78	61.9
	fifties	30	23.8
Spousal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20	15.9
	high school graduate	86	68.3
	over college graduate	20	15.9
Family composition	couple	3	2.4
	couple + unmarried children	84	66.7
	parents+couple+unmarried children	39	31.0
Income (economy)	less than one million won	16	12.7
	More than 1 million won and less than 2 million won	53	42.1
	More than 2 million won and less than 3 million won	38	30.2
	More than 3 million won~less than 4 million won	19	15.1
Duration of residence	less than three years	7	5.6
	More than 3 to less than 5 years	19	15.1
	More than 5 to less than 7 years	26	20.6
	more than seven years	74	58.7
marital satisfaction	full satisfaction	14	11.1
	Satisfaction	37	29.4
	Ordinary	63	50.0
	Unsatisfactory	10	7.9
	Great Unsatisfactory	2	1.6

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국적($p<.001$), 본인 연령($p=.004<.05$) 본인 학력 ($p=.001<.05$), 배우자 연령 ($p=.001<.05$), 배우자 학력 ($p=.014<.05$), 소득수준 ($p<.001$), 거주기간 ($p=.038<.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의 사후분석 결과 국적은 베트남이 58.91로 필리핀, 기타보다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연령은 20대가 58.00으로 50세 이상보다 높았다. 본인 학력은 중졸 이하가 59.13으로 대졸 이상보다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배우자 연령은 40대 이하가 50세 이상보다 높았다. 배우자 학력은 고졸 이하가 대졸 이상보다 높았다. 소득수준은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가 63.23으로 가장 높았으며, 거주기간은 5~7년 미만이 62.15로 3년 미만보다 스트레스가 높았다.

Table 2.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self-esteem, stress, and dep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Self-esteem		Depression		Stress	
Nationality	China (a)	89.00	±27.14	24.75	±3.84	10.75	±10.70	37.83	±14.71
	Japan (b)	99.00	±19.29	25.67	±2.09	9.11	± 7.29	36.00	±12.84
	Philippine (c)	82.50	±20.14	23.38	±5.34	15.25	± 7.80	34.63	±10.24
	Vietnam (d)	91.77	±18.79	27.30	±5.51	31.43	±19.70	58.91	±26.05
	Cambodia (e)	112.33	±10.07	27.00	±4.36	17.00	±12.49	38.67	±11.06
	etc (f)	83.67	±12.01	25.00	±3.61	6.67	± 7.23	31.67	± 8.74
	F (p)	1.635	(.156)	1.525	(.187)	8.548	(<.001)	5.869	(<.001)
		d>a,b,f				d>c,f			
Family composition	couple	79.67	±31.26	22.67	±5.51	23.33	± 2.89	51.67	± 7.64
	couple+unmarried children	91.49	±20.36	26.74	±5.13	26.18	±20.62	52.73	±25.48
	parents+couple+unmarried children	94.85	±18.05	26.33	±4.72	20.36	±16.62	47.10	±23.75
	F (p)	.993	(.373)	.991	(.374)	1.215	(.300)	.688	(.505)
Immigrant Women age	twenties (a)	95.28	±19.09	28.13	±5.03	29.52	±21.12	58.00	±27.78
	thirties (b)	89.18	±19.78	25.86	±5.30	25.21	±18.88	51.49	±23.38
	forties (c)	91.82	±22.84	24.45	±4.08	15.64	± 9.59	37.55	±12.74
	fifties (d)	95.58	±21.07	25.33	±2.27	8.00	± 6.44	33.75	±11.60
	F (p)	.922	(.433)	2.879	(.039)	5.221	(.002)	4.651	(.004)
		a>c		a,b>d		a>d			
Immigrant Women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a)	90.85	±21.81	26.30	±6.38	32.57	±19.34	59.13	±26.62
	high school graduate (b)	92.40	±19.27	26.98	±4.26	22.33	±18.85	49.74	±23.97
	over college graduate (c)	94.82	±17.72	25.77	±3.29	11.77	±11.40	36.68	±13.47
	F (p)	.298	(.743)	.528	(.591)	10.641	(<.001)	6.910	(.001)
		a>c				a>c			
Spousal age	thirties (a)	89.39	±21.91	25.28	±6.11	28.94	±19.94	54.83	±26.99
	forties (b)	94.21	±19.48	27.49	±5.04	27.95	±19.96	55.65	±25.16
	fifties (c)	88.87	±19.79	24.73	±3.52	12.07	±10.75	36.43	±15.36
	F (p)	.996	(.372)	4.098	(.019)	8.918	(<.001)	7.528	(.001)
		b>c		a,b>c		a,b>c			
Spousal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a)	91.60	±18.99	25.25	±5.62	25.70	±16.52	54.90	±25.24
	high school graduate (b)	94.48	±18.21	27.53	±4.56	26.55	±20.75	53.43	±25.78
	over college graduate (c)	83.30	±25.59	23.40	±4.94	13.30	±10.33	36.40	±11.77
	F (p)	2.639	(.075)	6.857	(.002)	4.060	(.020)	4.383	(.014)
		b>c		a,b>c		a,b>c			
Income (economy)	less than one million won (a)	74.81	±18.62	21.44	±4.98	19.13	±11.67	40.94	±13.93
	More than 1 million won and less than 2 million won (b)	95.43	±16.50	28.68	±4.64	33.68	±20.79	63.23	±26.75
	More than 2 million won and less than 3 million won (c)	92.00	±22.36	25.66	±4.93	21.16	±17.49	46.76	±21.65
	More than 3 million won~less than 4 million won (d)	98.53	±17.48	26.47	±1.87	8.84	± 6.95	33.58	±12.55
	F (p)	5.771	(.001)	11.400	(<.001)	11.084	(<.001)	10.786	(<.001)
		b,c,d>a		b,c,d>a		b>a,d		b>a,c,d	
Duration of residence	less than three years (a)	96.00	±25.15	25.71	±6.52	23.29	±22.01	44.86	±30.67
	More than 3 to less than 5 years (b)	88.37	±19.45	26.89	±5.08	26.47	±17.22	54.37	±26.09
	More than 5 to less than 7 years (c)	89.73	±22.69	26.19	±6.13	33.50	±18.64	62.15	±24.31
	more than seven years (d)	93.77	±18.62	26.61	±4.50	20.62	±19.05	46.73	±22.98
	F (p)	.601	(.616)	.137	(.938)	3.090	(.030)	2.891	(.038)
		c>d				c>a			

우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국적($p<.001$), 본인 연령($p=.002<.05$) 본인 학력 ($p<.001$), 배우자 연령($p<.001$), 배우자 학력 ($p=.020<.05$), 소득수준 ($p<.001$), 거주기간 ($p=.003<.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의 사후분석 결과 국적은 베트남이 31.43으로 중국, 일본, 기타보다 높았으며, 본인 연령은 20,30대가 50세 이상보다 높았다. 본인 학력은 중졸 이하가 32.57로 대졸 이상보다 우울이 높았으며, 배우자 연령은 40대 이하가 50세 이상보다 높았으며, 배우자 학력은 고졸 이하가 대졸 이상보다 높았다. 소득수준은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수준이 33.68로 1수준과 4수준보다 높았으며, 거주기간은 5~7년 미만이 33.50으로 7년 이상 보다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Table 2)

3.3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결혼 만족도, 사회적 지지, 자존감, 스트레스, 우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결혼만족은 사회적 지지($r=.247, p=.005<.05$)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우울($r=-.282, p=.001<.05$), 스트레스($r=-.256, p=.004<.05$)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자존감($r=.569,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존감, 우울, 그리고 스트레스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depression and stress.

	marital satisfaction	Social support	Self-esteem	Depression	Stress
marital satisfaction	1.000				
Social support	.247** (.005)	1.000			
Self-esteem	-.032 (.718)	.569*** (.001)	1.000		
Depression	-.282** (.001)	.047 (.599)	.364*** (.001)	1.000	
Stress	-.256** (.004)	.125 (.163)	.465*** (.001)	.874*** (.001)	1.000

* $p<.05$ ** $p<.01$ *** $p<.001$

3.4 사회적 지지가 자존감,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

사회적 지지가 자존감,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를 Dummy 변수로 변환하여 통제된 상태에서 결혼만족과 사회적 지지가 자존감, 우울,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자존감은 2.452, 스트레스는 2.418, 우울은 2.278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중공선성은 VIF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VIF 값은 1.114~6.141로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절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P<.001$)는 자존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beta=.472$) 자존감이 높아지며, 자존감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46.1%이다.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결혼만족도($p<.05$)는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beta=.167$) 우울이 높아지며, 우울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39.9%이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해보고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자존감,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자존감,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차이를 규명하고,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으며, 각 변수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자존감,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서로에게 주는 영향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결과 대상자들의 국적은 베트남이 가장 많았고 일본, 중국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연령대는 대상자들의 대다수가 (81.7%)가 20~30대로 나타났다. 이는 Byun 등[23]의 논문, Hong 등[17]의 논문과 비슷하다. 설문조사에 응하는 많은 참여자의 경우 젊은 층이 대다수였던 이유가 사회복지기관이나 다문화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들의 연령층이 20~30대가 많은 이유라고 추정할 수 있겠다. 아내와 남편의 학력이 고

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Byun 등[23]의 논문과도 같다. 본 논문에서 월수입 100만원~200만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Byun 등[23]의 논문에서도 월소득이 150만원~250만원이 대다수였으며, Ha 등[9]의 연구에서는 월 200~300만원, 월 100~200만원 순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고소득 가정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배우자의 학력, 결혼이주여성들의 학력 등과도 유관하다고 하겠다. 대상자들의 자존감 정도를 파악한 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의 수입 부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월 100~200만원 구간에서 가장 자존감이 낮았고, 다음은 월 300~400만원 구간에서 자존감이 높았다. 월 100만원 이하가 자존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월수입과 자존감은 밀접한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a 등[9]의 연구 결과와도 같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자존감과의 관련성에서 월수입 변인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일반적 사항과 자존감과의 관련성 연구가 전무한 상태라 비교가 불가능했으며, Byun 등[23]의 논문에서도 일반적 사항과 연관된 자존감을 파악하지 않았으며,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대상자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 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의 학력이 중학교졸업 이하 구간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순이었다. 또한 배우자의 나이가 40대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이 30대, 50대 순이었다. 경제력 즉 월평균 수입에서는 월 100~200만원

Table 4. Social support, self-esteem, depression, and the effects on stress

	Self-esteem					Depression					Stress				
	B	SE	β	t	p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12.785	2.851		4.485	.000	35.697	11.603		3.076	.003	52.253	15.667		3.335	.001
Nationality (China)	-.684	1.234	-.040	-.554	.581	-14.660	5.025	-.223	-2.917	.004	-10.828	6.785	-.129	-1.596	.114
Nationality(Japan)	-2.008	1.711	-.141	-1.173	.243	-11.771	6.967	-.214	-1.690	.094	-6.170	9.406	-.088	-.656	.513
Nationality(Philippine)	.506	1.670	.025	.303	.763	-8.926	6.797	-.113	-1.313	.192	-12.957	9.177	-.128	-1.412	.161
Nationality(Cambodia)	-2.591	2.271	-.079	-1.141	.257	-16.608	9.245	-.131	-1.796	.092	-25.124	12.483	-.156	-2.013	.047
Nationality(etc)	-.288	2.652	-.009	-.108	.914	-18.381	10.795	-.146	-1.703	.075	-15.411	14.575	-.095	-1.057	.293
Immigrant Women age(thirties)	-1.764	.903	-.176	-1.953	.054	2.980	3.676	.077	.811	.419	.672	4.963	.014	.135	.893
Immigrant Women age(forties)	-3.196	1.583	-.181	-2.020	.046	2.644	6.442	.039	.410	.682	-6.255	8.698	-.072	-.719	.474
Immigrant Women age(fifties)	-2.005	2.074	-.118	-.966	.336	4.868	8.445	.074	.577	.566	-2.287	11.402	-.027	-.201	.841
Immigrant Women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979	.810	.098	1.208	.230	-6.112	3.298	-.158	-1.853	.067	-4.059	4.453	-.082	-.911	.364
Immigrant Women education (over college graduate)	1.873	1.189	.142	1.576	.118	-6.582	4.838	-.130	-1.360	.177	-5.518	6.533	-.085	-.845	.400
Spousal age(forties)	2.231	1.104	.217	2.021	.046	-1.327	4.493	-.033	-.295	.768	.807	6.067	.016	.133	.894
Spousal age(fifties)	1.493	1.366	.127	1.093	.277	-10.805	5.559	-.239	-1.944	.055	-10.679	7.505	-.185	-1.423	.158
Spousal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1.121	.998	.104	1.123	.264	3.412	4.062	.082	.840	.403	-.490	5.485	-.009	-.089	.929
Spousal education (over college graduate)	-1.402	1.412	-.103	-.994	.323	-4.225	5.746	-.080	-.735	.464	-10.876	7.758	-.162	-1.402	.164
Income (economy (More than 1 million won and less than 2 million won)	4.046	1.288	.400	3.141	.002	5.193	5.244	.133	.990	.324	7.469	7.080	.150	1.055	.294
Income (economy (More than 2 million won and less than 3 million won)	1.731	1.347	.159	1.285	.202	-3.034	5.482	-.072	-.554	.581	-4.788	7.402	-.089	-.647	.519
Income (economy (More than 3 million won~less than 4 million won)	2.563	1.481	.184	1.730	.087	-10.645	6.031	-.198	-1.765	.080	-11.425	8.143	-.166	-1.403	.164
Duration of residence (3~5years)	1.604	1.750	.115	.917	.362	-.709	7.124	-.013	-.100	.921	6.983	9.619	.102	.726	.469
Duration of residence (5~7years)	.754	1.707	.061	.442	.660	6.691	6.948	.141	.963	.338	14.583	9.382	.240	1.554	.123
Duration of residence (more than seven years)	1.916	1.651	.189	1.161	.248	2.419	6.721	.062	.360	.720	8.174	9.075	.164	.901	.370
marital satisfaction	-.813	.440	-.138	-1.849	.067	-3.790	1.790	-.167	-2.117	.037	-4.357	2.417	-.150	-1.803	.074
Social support	.119	.020	.472	6.026	.000	.079	.080	.081	.977	.331	.171	.109	.138	1.575	.118
	$R^2=.556$, adj $R^2=.461$ F=5.863(p<.001) d=2.452					$R^2=.505$, adj $R^2=.399$ F=4.770(p<.001) d=2.278					$R^2=.447$, adj $R^2=.329$ F=3.784(p<.001) d=2.418				

구간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높았고, 다음은 월 300~400만원 구간, 그리고 월 200~300만원 구간 순이었으며 월 100만 원이하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우울 정도를 파악한 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의 학력이 중학교 졸업 이하 구간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순이었다. 또한 배우자의 연령에서는 30대가 가장 우울이 높았고 40대, 50대 순이었다. 월수입에서는 월 100~200만원 구간에서 가장 우울이 높았고, 다음은 월 200~300만원 구간, 그리고 월 100만원 이하 구간 순이었으며, 월 300~400만원 구간에서 우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자존감, 스트레스, 우울은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존감, 우울, 일상생활스트레스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가 없는 상태라 비교가 불가능하다. 다만 월수입과 우울이 비례해 보이는 듯 하지만, 월수입이 가장 높은 월 300~400만원 구간이 가장 우울한 이유는 월수입과 비례하여 직업적 강도와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이유로 짐작해볼 수 있으며, 결혼이주여성들의 학력, 배우자의 나이, 월수입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이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은 그들이 자존감을 갖고 스트레스가 적게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배우자의 나이와 직업과 월수입이 연관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Ha 등[9]의 연구에서 낮은 교육수준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우울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와 함께 중학교 졸업 이하에서 더 우울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도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졸업이하에서 우울과 함께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으므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학력 신장의 기회를 준다면 이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자존감,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결혼만족은 사회적 지지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스트레스, 우울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자존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스트레스와 우울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는 자존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우울을 다룬 논문[9][17][23]은 몇 편 있으나 자존감,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다룬 논문은 전무한 실정이다. 하지만 유사 논문의 결과와 비교하자면 Byun 등[23]의 논문에서 남편의 우울과 다문화 수용태

도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논문의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과 스트레스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결혼만족이 스트레스, 우울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와도 유관하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결혼기간 3년 미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Hong 등[17]의 논문에서도 결혼기간 2년 미만인 그룹이 5년 이상인 그룹과 비교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Hong 등[17]의 연구에서 결혼기간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본 연구결과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 배우자 연령에 따른 차이, 수입에 따른 차이에서 영향이 있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결혼생활 만족도, 월 평균 수입, 문화적응 스트레스, 결혼 후 한국 생활적응에 도움을 준 사람이나 단체라고 밝힌 Ha 등[9]의 연구 결과와도 같다.

셋째, 결혼이주여성들의 스트레스 관련한 논문들은 대다수가 양육스트레스[3][5][6][13][24]와, 문화적응스트레스[8][9][16][19][21][24]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문화적응스트레스 외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다룬 논문이 전무한 현실에서 본 연구결과에 나타난 스트레스와 우울 간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연구 결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가 끝난 경우, 혹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경우에도 일상생활스트레스는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알아본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결혼생활만족도, 양육스트레스가 있으며 이중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결혼이주여성들의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Roh 등[25]의 논문도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연관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한국 거주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낮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이 높아진다는 Ha 등[26]의 논문도 본 논문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하겠다. 다만 본 논문과 Ha 등[26]의 논문과는 거주기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거주기간 5년~7년 구간이 우울이 가장 높았으며, 3년~5년 구간, 7년 이상 구간, 3년 미만 구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낮아질 수 있겠지만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적응기간과 무관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거주기

간이 짧은 경우 오히려 낮았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가족 간 상호협조로,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으로 보완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스트레스 및 우울을 자녀양육 스트레스[3][5][6][13][24]와 자녀양육방법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내국인 결혼여성들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답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본 연구처럼 경제곤란과 문화도전 인식은 부부 각자의 우울에 기여하며, 그런 인식과 우울은 부부 간의 공격적 갈등반응을 촉발하며, 결혼안정성을 감축한다는 Hyun 등[27]의 결론도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안정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자존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사회적 지지는 자존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경제적 곤란 수준이 낮을 때 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른 우울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곤란수준이 높을 때 서비스 이용기간이 긴 집단에서 이용기간이 짧은 집단보다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집단의 경우에는 지원서비스 이용 집단에서 우울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Hyun 등[28]의 연구에서도 경제적 수준이라는 일반적 사항을 고려했을 때 서비스 이용기간 즉, 사회적 지지의 기간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방해하는 가정 내 폭력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곤란, 스트레스가 결혼이주여성들의 우울과 한국인 남편의 공격적 갈등 반응 행동에 기여한다는 Hyun 등[28]의 연구 결과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만족은 사회적 지지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스트레스, 우울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킬 수 있다.

본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만족도와 우울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일에 다양한 방법의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며,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는 일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며, 스트레스, 우울을 낮추어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바, 사회적 지지를 서비스기관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만으로 만족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경제적 곤란이 본 논문에서도 자존감, 우울,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음을 밝힌 만큼 결혼이주여성들

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국가와 기관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재교육 즉 학력신장을 위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때임을 밝힌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구와 사회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해나가길 기대하는 추후 노력들이 연구결과로 속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5. 결론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해보고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자존감,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들의 대다수가 (81.7%)가 20~30대로 나타났고, 국적은 베트남, 가족구성인 경우 부부 및 미혼자녀가구, 학력 고졸, 배우자 학력 고졸, 수입 200~300만원, 거주기간 5년~7년 미만, 결혼만족도 보통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표본 상 특징이 모집단 전체를 대변한다 할 수는 없다.

본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중 소득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존감은 소득수준과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혼만족이 사회적 지지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간에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자기상관이 없었으며, 사회적 지지는 자존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절한 표본수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또한 대상자들의 국적분포가 대한민국 결혼이주여성들의 국적분포와 동일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점을 추후 연구 시 더욱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The status of international marriages, 2018.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30
- [2]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National Government Administration Statistics Yearbook, 2016.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3&nttId=55657
 - [3] H. K. Jo, & H. S. Lim,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s and Parenting Stress on Support from Spouse and from Family of Married Immigrant Women with Adolescent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11, pp.389-402,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11.389>
 - [4] G. H. Jeong, H. J. Koh, K. S. Kim, S. H. Kim, J. H. Kim, H. S. Park, Y. S. Lee, Y. R. Han, K. W. Kim, "A Survey on Health Management of during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ostpartum of Immigrant Women in a Multi-cultural Family ",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e*, Vol 15, No 4, pp.262-269, 2009.
DOI: <https://doi.org/10.4069/kiwhn.2009.15.4.261>
 - [5] C. S. Park, & N. R. Bae, "The Study of How to Integrate Multi-cultural Families with the Local Community",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14, No 3, pp.127-149, 2011.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682023>
 - [6] H. R. Kim, "Maternal Health and Nutritional Status of Marriage- Based Women Immigrants in Korea and Policy Directio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Vol 155, pp.50-64, 2009.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542692>
 - [7] J. D. Hovey, & C. G. Magana, "Psychosocial Predictors of Anxiety Among Immigrant Mexican Migrant Farmworkers: Implication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Vol. 8, No 3, 274-289, 2002.
 - [8] J. Y. Rhee, & J. Y. Lee, "Study on Influence of Mothers' Enculturation Stress on Children's Maladjustment in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Control Effect of Ego-Resil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Asian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Vol 10, No 2, pp.83-101, 2012.
<http://search.koreanstudies.net/thesis/thesis-view.asp?key=3175517>
 - [9] J. Y. Ha, & Y. J. Kim,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in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e*, Vol 19, No 4, pp.254-264, 2013.
DOI: <http://dx.doi.org/10.4069/kiwhn.2013.19.4.254>
 - [10] Health and Welfare Ministry, *2016 National Nutrition Health Survey*, 2016.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BOARD_ID=140&BOARD_FLAG=00&CONT_SEQ=342756
 - [11] H. J. Joo, & K. M. Cho, "Original Articles : Effects of Cognitive-Behavioral Program by Improving Self-esteem on the Problem-solving Ability, Depress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 14, No 3, pp.260-267, 2007.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2501409>
 - [12] Y. C. Huang, & N. J. Mathers, "Postnatal depression and the experience of South Asian marriage migrant women in Taiwan: Survey and semi-structured interview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 45, 924-931, 2008.
 - [13] M. A. Kim, The "The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in Mothers of Multi-cultural Households on Parenting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Protection*, Vol 3, No1, pp.59-96, 2018.
http://210.101.116.18/kiss10/download_viewer.asp
 - [14] E. Y. Jin, "Mediating Effect of Bicultural Compet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Psychosocial Adjustment: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 *Korean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 32, pp.303-326, 2015.
<http://search.koreanstudies.net/thesis/thesis-view.asp?key=3400677>
 - [15] J. W. Park,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doctor's thesis, Yonsei University, 1985.
 - [16] G. C. Kim, A Study for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Intermarried Immigrant Women's Acculturative Stress who got Married to Korean 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l University, 2010.
 - [17] S. Y. Hong, Nguyen Duc Thanh, C. J. Shin, S. I. Lee, J. W. Son, S. K. Kim, K. W. Ju, "Survey of Influencing Factors on Depression and Anxiety", *Korean Journal of Biologic Psychiatry*, Vol20, No4, pp.144-150, 2013.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25535e886d95dcf2b7998d826d417196
 - [18] K. B. Koh, & J. K. Park, "Development of the cognitive stress response scale",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43, No.3, pp.320-328, 2004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2ada9a15d209360dffe0bdc3ef48d419
 - [19] B. S. Mun, Study on the everyday life stress and Acculturation stress in married migrant fema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2016.
 - [20] Rosenberg, Morris, *Conceiving the Self*, Malabar, FL: Robert E. Krieger, 1979.
 - [21] H. J. Suh, A Study on the Marital Quality and Marital Stability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 Unpublished doctor's thesis, Kyonggi University, 2008.

- [23] M. H. Byun, & K. J. Kang, "Factors of Married Couples Influencing the Marital Satisfaction of Wives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5, No 2, pp.127-141, 2010.
<http://search.koreanstudies.net/thesis/thesis-view.asp?key=2853170>
- [24] H. S. Park, "Mediated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and Maternal Parenting Stress on Internalized Problems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Focused on the Mediating Role of Mothers' Depression",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 27, pp.353-376, 2014.
http://210.101.116.15/kiss5/download_viewer.asp
- [25] S. Y. Roh, & E. Y. Kim,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Rural Area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24, No 4, pp.370-379, 2012.
DOI: <http://dx.doi.org/10.7475/kian.2012.24.4.370>
- [26] K. J. Hyun, "Effects of Economic Hardship and Cultural Challenge on Family Processes among the Multicultural Couples : Application of the Family Stress Model Caused by Economic Pressure ",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30, No 4, pp.81-109, 2016.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37345>
- [27] K. J. Hyun, & J. H. Kim, "Moderating Effects of Hope, Couple Intimacy and Utilization of Family Support Service on the Relationships of Stress and Depression or Conflict Response Behavior among the Multicultural Coupl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7, No 1, pp.140 -180, 2017.
DOI: <http://dx.doi.org/10.15709/hswr.2017.37.1.140>

임 현 숙(Hyun-Suk Lim)

[정회원]



- 200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호원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노인간호, 다문화여성

조 혜 경(Hae-Kyung Jo)

[정회원]



- 201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전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정신간호, 노인간호, 다문화여성